

# 베스트셀러 원작 어린이 뮤지컬 잇따라

새 학기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잇따라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들은 오랜 시간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베스트셀러 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들로 눈길을 끈다.

먼저 오는 26일 오전 11시, 오후 2~4시 세 차례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리는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싸어?'는 독일 작가 베르너 홀츠바르트의 작품 '누가 내 머리에 똥 싸어?'를 극화해 만든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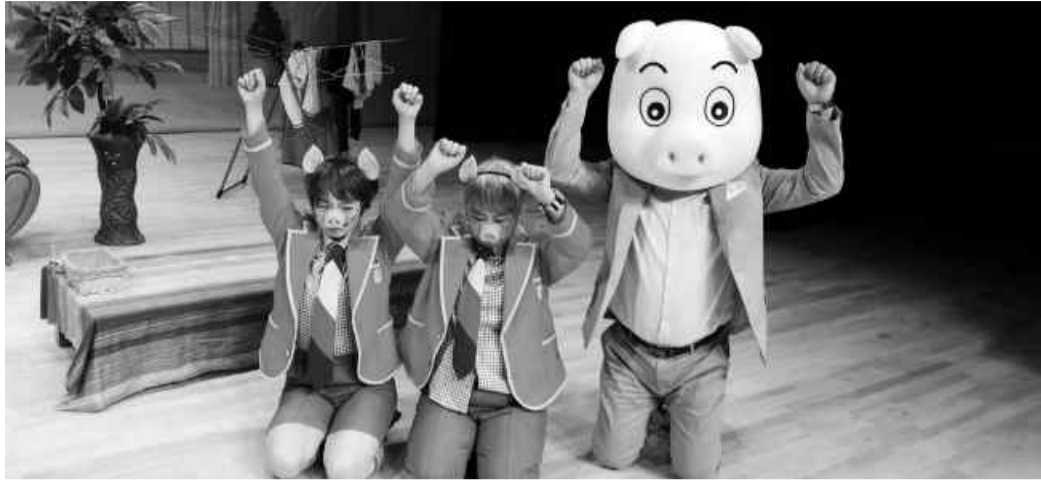
방송에 사는 두더지가 어느 날 땅 위로 고개를 내밀다가 똥 세례를 받는다. 눈이 나쁜 두더지는 누구의 똥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누가 내 머리에 똥 싸어?"라고 외친다. 두더지는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진 똥에 화가 나, 그 똥의 주인을 찾아 나서면서 두더지와 염소, 젓소, 말 등 여러 동물들을 만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동물들의 생김새와 똥 모양을 관찰하며 사고력과 관찰력 등을 키울 수 있으며 다양한 의태어와 의성어, 율동과 배경음악은 집중력을 끌어올린다. 관람료 3만5000원.

엄마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어린이 뮤지컬 '돼지책' (26일 오후 2~4시, 27일 오전 11시·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은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을 원작으로 한다.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아빠 피곳,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사이먼과 패트릭은 집안에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집안일은 모두 엄마 '딴'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도 직장에 다니기는 마찬가지. 엄마는 출근 전에도, 퇴근 후에도 온통 집안일을 도맡아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너희들은 돼지책'이라는 쪽지를 남기고 엄마가 사라졌다.

작품은 엄마들이 혼자 짊어지고 있는 가사노동이라는 진지한 주제를 위트 넘치는 방식으로 풀어낸다. 이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누구



베스트셀러 동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작품들이 잇따라 무대에 오른다. 사진은 오는 26~27일 열리는 '돼지책' 공연 모습.

26일 5·18 기념문화센터 '누가 내 머리에 똥 싸어?'

26·27일 광주문예회관 '돼지책' 공연

4월 9·10일 5·18 기념문화센터 '책 먹는 여우'

하나의 몫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몫이라는 원칙을 일깨워 준다. 관람료 3만원.

오는 4월9일(오후 2~4시)과 10일(오전 11시·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리는 '책 먹는 여우'는 독일 동화작가 프란치스코 비어만의 작품으로 어린이 필독서로 선정되며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

책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책을 읽은 후 책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서 먹어 치우는 영리한 여우가 주인공이다. 여우는 집에 있는 책을 먹는 것으로도 모자라 도서관의 책을 훔쳐 먹고, 종이로 된 온갖 광고지, 전단지까지 먹게 되면서 나중에는 출판사를 차리게 된다는 내용이다.



작품은 여우의 이야기를 통해 독서의 의미와 방법을 알려준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컴퓨터와 TV에 폭 빠진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는 재미와 공연을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관람료 3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넷플릭스 오리지널 '소년심판' 김혜수

## “소년범죄에 대한 대화 시작점 되길”

배우 김혜수(52)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에서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소년범죄를 다루는 법관 역을 맡아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다.

김혜수는 최근 화상 인터뷰에서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큰 작품이었다”며 “이 작품을 통해 소년범죄와 소년법을 둘러싼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년심판'은 소년법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김혜수는 성인이 아닌 소년이라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신념을 가진 판사 심은석을 연기했다.

그는 “심은석은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인물인데, 이 부분이 작품의 주제와도 밀접하다고 생각했다”며 “겉으로 보기에 소년법을 혐오하고 저주하는 것 같지만 (사건의) 실체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이면의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지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상적인 판사”라고 캐릭터를 소개했다.

김혜수는 작품이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글로벌 순위 7위까지 오르며 호평을 받는 소감을 묻자 “소년범죄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 형성된 것 같아 작품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사회 문제를 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고민할 만한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만큼 작품의 메시지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촬영 준비부터 공을 많이 들였다고 했다. 소년재판을 직접 참관하기도 하고, 소년재판을 맡은 판사 10여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드라마 속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사고, 시험지 유출사건,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의 에피소드는 실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연기할 때는 실제 사건에 대한 감정을 배제했다고 했다.

김혜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은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판사가 저 모양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판사들을 만나보니 이들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감으로 고뇌하며 일하는지 느꼈다”고 전했다.

드라마에서 김혜수의 존재감이 절대적이다. 소년법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조금도 묻어나지 않은 무심한 표정으로 등장해 아이들이 숨기고 있



소년재판 참관하며 작품 준비 “우리 사회 문제 담고 있어 함께 고민할 화두 던지는 작품”

는 진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헤치고, 잔혹한 범죄에 차갑게 분노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괴로워하면서 10부작을 이끈다.

영화·드라마를 오가며 경찰, 변호사, 사기꾼, 마담, 톱스타, 주부 등 다채로운 역할을 소화해온 그이지만, 이번처럼 웃음기 없이 시종일관 냉정함을 유지한 캐릭터는 드물었다.

김혜수는 마음에 와닿는 대사가 참 많다고 했다.

첫 회와 마지막 회에 “저는 소년법을 혐오합니다”라며 선포하듯 내뱉는 대사나 “저분은 소년들한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껴야 한다”는 대사 등에는 은석의 많은 고민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김혜수는 “은석은 단순히 소년법을 혐오하는 캐릭터가 아니다”라며 “협오는 하되 (소년법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사로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 이면에 우리 사회가 범죄에 어떤 부분이 책임이 있고, 어른들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아이들을 책임 있게 이끌었는지 등을 생각하게 하는 대사”라고 설명했다.

김혜수는 “작품을 선택할 때만 해도 소년범죄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품을 준비하며 법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경험하고 나니 내 관심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감정적인 접근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편협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품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많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요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대한 의견을 지인들 간에 말해보는 대화의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광주문예회관 온라인 서포터스 'CC' 3기 발족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하경완)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서포터스 'CC(Culture Creator)' 3기(사진)를 발족했다.

문예회관은 최근 소극장에서 20명의 온라인 서포터스를 임명하는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온라인 마케팅 교육, 서포터스 활동에 대한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문예회관 'CC'는 Culture(문화) + Creator(콘텐츠제작자) 합성어로 문예회관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서포터스를 말한다. 선발된 서포터스는 오는 12월 말까지 개인 온라인 채널을 통해 회관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서포터스 팀장을 맡은 배지현(22·대학생)씨는



“뛰어난 서포터스들과 함께 활동할 생각이 벌써부터 설렌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을 더욱 빛나게 하는 서포터스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프로그램 운영 강사 공모

### 광주 서구청소년수련관

광주 서구청소년수련관은 2022년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공예·취미·건강 등이다.

선발된 강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관련 분야 졸업증서 소지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서 소지자 등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광주 서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www.lalacenter.or.kr/>)에서 다운로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54-432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피쉬데이(주)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라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